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이론적 종합을 지향하며
(Women, the Environment and Sustainable Development-Toward a Theoretical Synthesis)

로지 브라이도티, 에바 차르키에비츠, 자비네 호이슬러, 자스키아 비에링가 지음.
한국여성NGO위원회 여성과 환경분과 옮김, 나라사랑 출판, 1995
박 영 숙(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I. 머리말

이 책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해내기에는 이 분야의 우리의 연구축적이 없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일기 시작한 여성과 환경운동의 활동가들이 양운동간의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이론연구와 때맞추어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오게 된 것은 다행이다. 1995년 8월에 개최되었던 제4차 유엔 여성대회인 북경대회를 앞두고 한국여성환경인들이 대회참가준비를 겸해 공동으로 「여성,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번역해 낸 것은 일거양득의 성과였다.

이 책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환경문제가 특별한 방식으로 여성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한 유엔의 국제여성발전연구교육원(INSTRAW)의 위촉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주제의 복잡성과 학문간의 상호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다룬 대안적인 이론틀로서 한사람의 저자가 아닌 연구팀에 의해, 그리고 세계 여러나라의 활동가, 연구가, 개발전문가들의 다양한 시각과 견해, 그리고 다양한 입장들도 반영되어 있어 이 연구 결과가 향후 이론과 실천에 모두 활용될 수 있게 했다는데 특징이 있다.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이미 INSTRAW와 여성환경개발기구(WEDO)의 창시자이자 공동대표인 벨라 압죽(Bella Abzug)의 추천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INSTRAW는 인류가 지구환경위기를 어떻게 그리고 누가 극복해낼 것인가 하는 과제 앞에서 이 연구가 기여한 것은 ①전세계적으로 여성이 얼마나 전면적으로 환경문제에 관련되어 있는가를 증명하고 ②현재와 미래의 환경에 관한 결정들에는 반드시 여성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하며 ③여성들의 기여는 세계의 미래를 위하여 유용할 뿐만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 것이라고 한다.

압죽은 그의 추천사의 첫머리에서 이 책은 마치 자신이 일생동안 무미건조한 말만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놀라는 몰리에르의 희극 「부르조아와 귀족」의 등장인물처럼 전세계 여성들이 인종, 계급, 문화의 차이를 불문하고 일상생활과 환경 및 개발과정에서 긴밀한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에서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이다.

이 책은 지금까지 많은 여성학자와 이론가들이 추진해온 인식론적 연구에 보태진 또하나의 지적인 자극과 새로운 문제 제기의 이론틀을 제공해준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①여성을 자연과 연관시키는 가설 ②지속가능한 개발을 진정한 진보와 동일시할 수 없다는 주장 ③여성도 정치권력에 의해 부패되어 남성들의 지배패턴에 굴복하고 말 것인가 하는 의문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이론적 모델들의 장점과 단점을 평가한 것이 돋보인다고 한다.

압죽은 또한 저자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 주제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론을 행동으로 연결시키고 산업화된 선진국과 빈곤한 제삼국가의 여성들 사이에 놓을 다리를 찾으려 환경, 개발, 원주민 분야의 사회운동에서 여성들이 연대해야 한다고 한다.

압죽은 그가 일생을 여성운동가, 정치운동가, 반핵평화운동가로서 살아오면서 다국적기업, 정부, 전쟁산업이 가진 무한한 탐욕과 사회적 무책임이 지구의 건강에 어떠한 해악을 끼치고 있는가를 깨닫고 경악하여 환경운동에 뛰어들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과정에서 여성들이 주요 희생자이고 그리고 남성들이 저지른 이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으려는 의지를 가진 것도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운동가와 이론가가 힘을 합치면 오늘의 지구환경문제와 권력관계 문제를 변화시켜 현세대인과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고 평화로우며 평등한 지구를 남기기 위한 전망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 책이 갖는 의미를 평가하고 있다.

한편 역자들은 이 책이 환경문제에 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여성환경운동에 관한 인식등을 정립하는데 적절한 자료라고 판단해서 번역했다고 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나라의 여성환경운동가들이 환경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대상이나 주제의 성격에 따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하는 인식론과 실천방법론은 공유되지 않은채 단체의 성격에 따라 활동한 경향이 있었다고 자성한다. 여성들이 환경문제를 몸과 마음으로 느끼고 헌신적으로 실천하는 것 자체가 반드시 긍정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환경파괴를 일으킨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 동안 여성들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자라는 소극적인 생각을 했을뿐 환경보전의 기여자, 참여자, 관리자, (가해자)라는 생각은 부족했는데 바로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II.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 - 본문개요

WED란 용어는 제3세계에 있어서 잘못된 개발과 여성과의 관련성을 표현하기 위해 쓰여지기 시작한 것이 지금은 지구전체의 지속가능한 생존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개념으로 정착되어가고 있다.

1) 주제의 대두 배경

WED논의가 대두된 배경은 개발이란 식민시대이후 저개발사회를 근대화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받아들여져 왔는데 오히려 개발과정이 빈곤의 심화, 경제적 그리고 성적 불평등의 심화, 환경악화와 그로 인한 빈민층의 생계위협을 원인이 되고 있으며, 확대된 환경악화는 전지구적 규모로 영향을 주어 지구상의 생명의 존속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데서 출발되었다.

개발은 본질적으로 한계를 지닌다는 인식이 이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작업에 불을 붙여 주었고, 그 주체가 여성들이라고 보고 있다. 여성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개념화하는 작업에서 자연에 대한 지배와 여성에 대한 지배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된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남쪽에서는 WED에 관한 논쟁을 자극하였으며 북쪽에서는 에코페미니즘(Ecofeminism)을 태동시켰다고 한다.

1980년대 후반 여성·환경·지속가능한 개발 논의는 환경과 개발에 관련된 국제회의에서 주요한 의제로 자리잡게 되었으며, 개발위기 인식이 점차 확산되면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의에 지

속가능성의 사회적 측면을 강조하는 여성의 목소리가 보태지게 되었다고 한다. 1992년 리우 환경과 개발회의(UNCED) 이후 여성들은 WED라는 개념 틀을 정립하고자 이론적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는데, 이 연구의 목표는 WED와 관련된 중요한 토론의 장점과 약점을 밝혀 여성을 위해,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생각하고 계획하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저자들은 환경과 개발 논의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하고, 그를 통해 기여하는 것이 현재의 지구환경위기를 해결하는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성이 환경과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며 모든 사회집단이 연대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의 지구적인 환경재난은 서구의 개발 모델에 기초하고 있다고 보아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며 세계질서를 지속가능한 체제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지배체제에 저항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을 결합시켜야 할 필요성이 지금처럼 절실한 때는 없었다”(하러웨이, 1991:54)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장은 일찌기 흑인 페미니스트들에 의해 주장되어 왔던 것이다.

2) 개발주의에 대한 비판

제 2장에서는 북쪽의 개발이 남쪽에 미친 영향과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한 비판으로서 유엔의 10개년 개발 계획이 남쪽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1960년부터 1990년대까지 단계별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1990년대에 이루어진 개발행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비판은 그것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환경파괴를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으며, 이것이 바로 '92년 UNCED를 조직하게 한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 그 회의 기간 동안 북쪽정부들은 그들의 생산과정과 소비양상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재의 세계경제체제를 “녹색화”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저자들은 UN의 경제개발과정은 서구 선진국이 주도하였고, 선진국의 끊임없는 개발 프로젝트가 남쪽의 자연환경 파괴, 빈곤, 여성 노동력 착취 등을 낳았다고 분석한다. 저개발국은 수출지향적 성장방향의 세계 시장에 종속되게 되었으며, 단기이윤을 쫓는 다국적 기업에 의해 지배당하게 되었다는 입장을 확실히 하고 있다.

3) 페미니즘의 과학 비판

서구과학에 대한 페미니즘적 시각은 현재의 지구위기의 책임이 계몽주의에 기초한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있다고 보고 있다. 과학은 남성에 의한 경제적 이윤을 목적으로 여성과 환경을 지배하는 것을 합리화하고, 여성과 자연을 배제·지배함으로써 여성차별과 환경파괴를 초래했다고 한다. 페미니즘의 과학비판은 새로운 인식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근본생태주의자, 사회생태주의자, 에코페미니스트 그리고 대안적 개발론이나 WED적 관점을 지지하는 학자들의 입장들과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들은 모두 지배적 개발 모델이 인종 중심주의와 폭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에 동의한다. “서구지식체계의 잘못된 보편주의를 해체하고 페미니즘의 투쟁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모든 사회 세력들과 연대하라”(Harding, 1986)고 하고 있다. 하지만 상이한 세력들 간의 연대의 공통기반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들 사이의 의견 차이는 우선순위 문제이다. 예를 들어 환경주의자들은 여성의 평등에 관해서 의미를 두지 않는 반면, 여성주의자들은 가부장제 자체를 환경파괴의 근원으로 본다는 점등이다.

4) 여성과 자연의 관계

WED 논의에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에코페미니즘의 뿌리를 분명하게 파악하기 위해 페미니즘 내부의 입장을 여성운동사라는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페미니즘은 이론적 관점에 따라 몇가지 조류로 나눌 수 있으나 여성운동계 내부에서 빈번하게 되풀이되는 논쟁중 하나는 여성과 자연의 관계이다. 이를 단순하게 도식화하면, 하나의 입장은 여성과 자연을 동일시(혹은 친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여성이 선천적으로 자연과 가까운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앞의 이론은 모성의 원리를 무시한 가부장적 개발이 자연환경의 파괴와 여성 피해의 원인이므로 생명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데 그 변화를 위한 원동력은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

는 것이다. 한편 자연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힘이 강조되는 생산양식이 확립되면서 여성=자연, 남성=문화라는 이원론적 인식론이 형성되고, 이것을 여성억압의 원인으로 보는 페미니즘 조류는 여성과 자연의 연계를 끊는데서 자유와 평등을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자연과 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운동과 여성운동의 접목이라 할 수 있는 에코페미니즘이 나타나게 된다. 환경운동과 생태운동이 각각 여성과 자연에 대한 지배와 착취를 벗어난 새로운 가치와 사회의 창조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평등주의적 관점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고 본다. 저자는 여기서 여성과 자연의 연계문제에 대한 답은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여성과 자연이 함께 예측돼있다고 인식하는 것과, 그러한 예측이 역사적·문화적으로 특정한 형태를 취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하기 때문이다.

5) WED와 다른 견해들

개발 논쟁에 있어 WED라는 주제는 지난 20년간 국제적으로 매우 높은 관심을 끌게 되었고, 그 주제에 대하여 일련의 상이한 사고의 흐름이 형성되게 되었는데 이 장에서는 그 논쟁의 전개 양상과 각각의 입장 및 사상들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다. WED는 남쪽의 경제 개발과정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즉 개발에서의 여성(Women in Development : WID), 그리고 환경과 개발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인도의 칩코(Chipko)운동이나 케냐의 그린벨트운동과 같은 남쪽의 사회운동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WED라는 흐름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개발논쟁에서 WED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난 30년간 UN이 추진한 개발과정과 세계경제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WED는 세계경제과정과 가부장적 구조에 대해 문제제기한 개념으로서 지배적인 개발양식의 지속성을 문제삼았다.

여기서는 경제개발과정 초기에 여성의 경제적 역할을 재생산 영역에서만 인정, 단지 개발의 수혜자로서 간주함으로써 개발과정은 오히려 여성의 지위를 하락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후의 논의는 경제개발의 주류속에 여성을 통합할 것과, 경제적 효율성 차원에서 평등문제가 제기되었다. 1980년대 이후 WED논의는 단순한 경제개발과정에서의 여성의 참여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차원에서 진전되었다. 즉 환경위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이 제안되었으며, 그것을 위한 전략과 프로그램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WED 논의는 마이애미 회의를 통해 유엔의 체계속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이 회의에서 여성들은 WED 개념을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총체적인 삶'의 개념으로서 제안하였다. 저자는 환경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여성들의 열기에도 불구하고 '92리우에서의 '지구여성(Plameta Femia)' 포럼에서는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논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고 여성들이 조직망과 집단적인 전략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6) 대안적 개발

지배적인 서구의 개발모델이 저개발국의 발전에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문제제기와 비판은 대안적 개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게 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대안에 대한 이론적인 입장으로서는 쉬트가 명명한 대안적 구조론과 대안적 규범론을 소개하고 있다. 대안적 구조론이나 규범론 모두 문제의 원인제공자인 북쪽에 대해 매우 도전적인데, 대안적 구조론은 문제의 원인을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찾고 있으며 변화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역할을 중시한다. 반면 대안적 규범론은 경제개발과 성장을 부차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인간육구와 대안적 생활양식 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복지에 대해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변화의 주체를 민중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대안적 규범론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관이 보편적인 그 어떤 것을 전제함으로써 개발모델 속에 포함된 보편주의의 위험이 재생되고 있음도 비판하고 있다.

저자는 대안 경제로서 쉬바의 '인간생존 경제와 자연 경제'의 개념을 소개하면서 현재의 지배적인 개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가난한 남쪽 여성들의 의견 수렴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그들만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주체설정에 관한 논의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지구적 환경위기의 해결을 위한 개발 대안 모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룹들 사이에 네트워크 형성과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남쪽여성과 북쪽여성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현재의 지배적인 개발 패러다임과 불평등한 남북관계를 공격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그리고 대안적 개발 개념에 의거한 입장들은 가치내재적 질문을 강조한다. 즉 빈곤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빈곤, 진보, 발전으로 간주하는가? 저자들의 주장은 지역적으로 지속가능한 생활양식, 참여민주주의, 그리고 피억압자들의 예측되었던 경험등이 지역적으로 적합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유형을 남쪽과 북쪽에서 동시에 구축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7) 환경적 개혁과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논쟁

마이애미 회의 이후 세계경제체제 내에서의 환경적 개혁은 매우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다. UN 개발기구, 환경산업, 환경관련학문 영역에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환경산업은 청정기술을 연구·개발하고 UN 개발기구는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환경생태경제학이나 환경사회학, 국제환경법 등의 학제간 연구 영역과 새로운 전문 분야가 등장하였다.

여기서 저자는 입장에 따라 달리 해석되는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소개하여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이해를 돕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논의의 출발점은 브룬트란트 위원회의 정의에서 비롯된다. 그 개념을 현 체제의 하찮은 개선으로 여겨 부정하는 측에서는 현실의 권력관계가 배제된 채 북쪽과 남쪽이 지구적 환경위기를 맞아 동반자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치 공동의 이해가 걸려있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어서 혼란을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화에서 등장하는 또다른 주제는 평등의 문제이다. 평등에 대한 강조는 WED 논쟁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이다. 여성들은 평등한 자원접근권 및 자원통제권과 평등한 결정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을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서 여성의 노동부담을 증가시키는 환경정책과 여성의 이해 사이에는 모순이 있다. 참여민주주의와 문화적 다양성 및 평등은 인류생존과 생물종 다양성의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인식론의 다양화와 그 견해들 간의 상호작용은 지속가능한 개발로의 이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따라서 이 논쟁에서 여성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8) 환경위기에 대한 세가지 인식론

근본생태주의와 사회생태주의, 에코페미니즘의 환경위기의 원인과 대안에 대해서 비교, 소개하고 있다. 이들 입장들 역시 단점이나 모순을 갖고 있지만 모두 환경위기의 인식론적 뿌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환경문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근본생태주의는 생태위기를 인간생존의 문제로 보고, 이는 인간을 자연보다 우위에 놓는 인간중심적 속성에서 비롯된다고 하면서 개인의 사고와 생활양식의 변화를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생물체간의 평등주의를 주장하면서 소규모 지역공동체의 재구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생태주의는 자연의 지배와 밀접하게 연관된 인간의 지배에서 위기의 원인을 찾는다. 전략에 있어서 이들은 현실의 지배관계를 폭로하고, 사회적 관심과 생태적 관심을 통합시켜 지배-피지배 관계에 기초한 사회 모델을 생태주의적 사회유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에코페미니즘은 자연의 지배와 여성의 지배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여성과 자연은 가부장적 권력구조의 희생물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은 여성들이 주체가 되는 탈집중적 사회운동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 에코페미니즘 내부에도 다양한 조류가 있어서 단순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 사

상에 대한 비판은 주로 역전된 여성중심적 위계질서의 재생산이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진다. 저자는 이 모든 사상을 종합하여 지배구조를 재생산하는 현재의 지식체계를 허물고, 변화의 힘이 있는 정치를 재구조화할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III. 맺는말-보고서가 남긴 과제들

이 책은 1990년 후반 문헌연구에서 시작되어 1992년 말에 완성된 「여성과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주제의 대두배경, 이론들의 역사적 진전과정, 주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의 분석등을 비롯해서 환경위기 극복을 위한 주제의 역할과 과제에 이르기까지의 총체적인 연구보고서이다.

이 책이 완성되기까지에 주제와 관련된 국제회의로서는 이 보고서를 위한 중간 워킹숍을 제외하고도 1991년의 마이애미 회의와 1992년 6월에 개최된 UNCED가 있었다. 이 책에서는 UNCED에서의 WED의 활동과 UNCED의 성과물인 공식회의의 「리우선언」이나 「의제21」 그리고 민간단체의 지구포럼의 「지구헌장」과 「대체협약」에 대한 WED의 입장과 평가에 관한 보고는 미처 추가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1995년 8월에 개최된 북경여성대회에서의 WED의 진전사항도 이 보고서에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WED에 대한 이론적 준거들은 앞서 명시한 모든 국제회의에서 오늘의 개발사업과 지구환경위기앞에서의 여성들의 시각과 입장 그리고 주장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의 역할은 충분히 해냈다. 다만 문제는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바와 같이 **대안적 개발을 추구하는 WED가 풀뿌리운동에까지 얼마나 미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북경여성대회에 참여한 환경운동 측의 평가에 의하면 풀뿌리 차원으로의 확대와 참여자의 다양성에는 진전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WED라는 주제가 여성운동 전반에는 아직 그 영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 것은 북경대회에서의 여성과 환경문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의외로 약했다는 것에서 알 수 있다는 것이다. 금세기 유엔이 주최한 모든 회의의 키워드인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21세기에 있어서의 여성의 새로운 역할을 논하는 북경대회가 외면했다는 것은 여성운동계와 환경운동계의 제대로의 연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 된다.** 뿐만 아니라 WED가 오늘날 여성만의 의제가 아니라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인류 전체의 의제로 되어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대회가 이를 외면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WED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이점은 **남북의 이념, 국가이익, 그리고 지역성을 뛰어 넘어** 여성의 연대를 이루어 낼 수 있다는데 있다. WED입장을 추진해 온 여성들은 UNCED기간 동안에 북쪽과 남쪽의 페미니스트, 에코페미니스트, 환경주의자, 개발담당 기관에서 파견된 여성, 재생산기술의 비판자들 그리고 여성의 재생산권 지지자들과 연대하였고 전지구 차원에서 여성들의 입장을 통합하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성공은 자연과 여성의 특별한 관계와 위기 극복에서의 여성들의 특성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 다는데서 가능했다. 이러한 견해는 모든 여성들이 「여성행동 의제 21」에서 통일된 목소리를 내는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그러면서 여성이 주체가 되는 대안적 개발 개념에 대해서 이원론의 반복이나 위계질서의 역전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다양한 세력들 간의 연대를 강화할 것을 강조하면서도 여성으로서의 입장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가부장적 이념을 유지하는 권력 구조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아울러 여성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남성에 대한 편견을 극복할 것과 여성이 **환경회복에 있어서 특권적 지위를 갖거나 여성만이 가능하다는 등의 독선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경고에도 유의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UNCED의 「의제21」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구환경문제는 굴뚝이나 하수구를 조절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공해문제와는 달리 인간 활동의 본질을 묻게 하는 문제로서 지구시민 모두가 자기의 선 자리에서 모든 활동을 환경친화적으로 이끌어 갈 때 해결되는 문제이다. 그런 점으로 미루어 지구환경위기 극복의 행동 계획인 「

의제21」은 국가차원의 역할 보다더 주민들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여성을 포함한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지역사회는 UNCED의 의제21에 의거, 1996년 말까지 「지역의제 21」을 작성하여 유엔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계획은 필히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시민, 기업, 정부대표들-과의 협력하에 작성하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환경운동의 평가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환경운동은 현상황에서 여성들이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들의 가사노동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성별분업을 고착시키거나 환경주범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으며 환경운동은 곧 주부운동이라는 인식의 만연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럼으로 환경운동은 필히 사회 여타 시민운동 및 사회운동과 연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지난 7월이래 실시되고 있는 지방자치제 (시민자치제)와 더불어 지방정부는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해당지역을 녹색화하는 작업을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성환경운동이 이러한 지방정부의 환경 행정에 적극 참여하는 것으로 문제해소의 시작은 가능하다고 본다.

다년간의 방대한 자료수집과 연구끝에 작성된 이 보고서가 현재의 전지구적 차원의 주제인 환경위기 극복에 여성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화두를 던져주기에 충분하다. INSTRAW는 여성이 환경운동에 적극적인 이유는 여성과 자연의 연관 관계 때문이라는 페미니즘적 환경주의에 의해서만이 아닌 WED의 미래적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다양한 입장들이 갖고 있는 장점과 약점 및 기여와 모순점을 정리해냈다. 아울러 이론적 준거를 형성을 위해 다양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실천적 차원에서 전략들을 파악해 볼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재의 환경위기를 성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만 단순히 지구적 자매애를 강조하는 것으로 인해 여성들 사이의 차이를 간과해서는 안되며, 남녀 구분이 아닌 인종이나 민족 계급등 서로 다른 배경에 대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함으로서 총체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서구 또는 다른나라의 경험을 기반으로 형성된 이론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보고서의 내용들이 앞으로 우리가 우리의 이론들을 구성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좋은 길잡이가 되는 것은 분명하다.